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두산, 중공업 살리기 위해 알짜 인프라코어 판다

두산그룹이 핵심계열사인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에 나선다고 보도됨. 두산그룹은 채권단으로부터 3조 6,000억원의 긴급 자금을 지원받는 대신 유상증자, 자산매각 등을 통해 3조원 규모의 자구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알려짐. (중앙일보)

Shale player Extraction Oil and Gas files for Chapter 11

Shale업체인 Extraction Oil & Gas가 파산보호신청(Chapter11)을 했다고 보도됨. 2024년말 채권에 대한 이자비용을 연체하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파산보호신청에 이르렀다고 보도됨. Colorado 파산법원에 따르면 회사는 현재 17억달러규모의 채무를 지니고 있다고 알려짐. (Upstream)

VLGC rates sink closer to operating costs as 15 ships 'overhang'

운휴 중인 15척의 VLGC overhang 이슈로 인해 운임이 하락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됨. 투자은행인 Cleaves Securities에 따르면, 현재 운임은 일주일 동안 -17% 하락한 일일 9,600달러 수준에 도달했으며 운영비용(Operating Cost Level)인 하루 7,000~8,000달러선에 근접했다고 보도됨. (TradeWinds)

Big is beautiful for crude and product tanker trades

최근 탱커 시장이 약간의 하락세를 겪었지만 여전히 VLCC 운임은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보도됨. LR2탱커의 경우 화학제품운반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됨. 발틱해운거래소에 따르면, 중동걸프-중국 간 VLCC 스팟 운임은 월요일 기준으로 하루 51,224달러로 최근 한달 세 급락한 수에즈막스, 아프리카막스탱커 대비 견조한 수준이라고 보도됨. (TradeWinds)

China to build offshore supply hub and free trade port at Hainan

중국 정부가 Hainan지역에 자유무역항구(free trade port)를 조성하고 중국 남부지역의 해양시추작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또한 중국 정부는 Hainan 항구에서 향후 자유로운 거래 활성화를 위해 관세를 낮추고 입출항을 자유롭게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보도됨. (Upstream)

물 위에서 서성이는 LNG선

호주 서해안 Dampier 항 해상에서 3주 동안이나 서성이고 있는 LNG선이 목격됐다고 보도됨. 당초 멕시코로 항할 예정이었던 이 선박은 바이어의 구매 취소로 인해 바다위에 머무는 상태라고 보도됨. 호주의 LNG 수출은 3월과 4월 중 5,800만~6,900만톤이었으나 5월에는 6,400만톤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